

대행 스님

내 마음에 불심을 일으키는 것이 밝은 인등을 켜는 것이다

(지난 호에 이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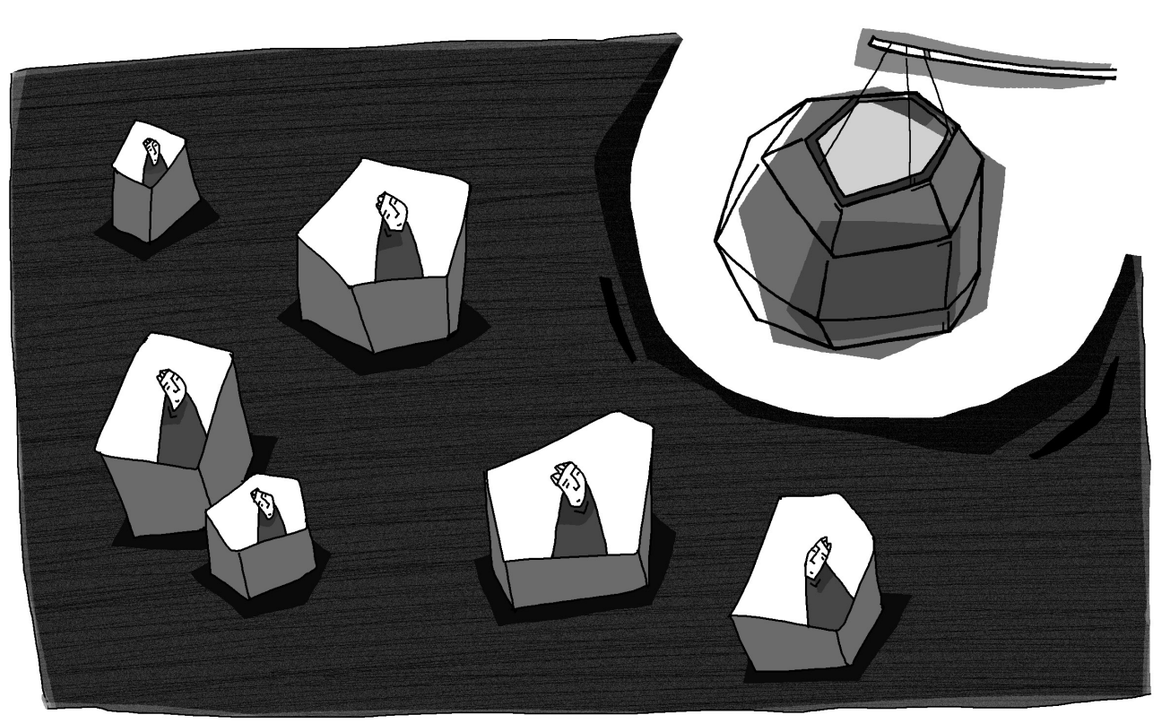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 말을 하는 것은 누구를 헐뜯으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대가 세대니만큼 그렇게 바쁘게…, 나는 눈물이 찡하게 나곤 하죠. 저기 있는 보살이 선원의 지금 사무장님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차를 타고요, 머리 빗고요, 빵 한 개 들고요, 그거 마시면서 그 빵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뿐이 아니에요. 이 카세트를 거기 끼고 들으면서, 그러니까 귀도 일을 하고 입도 일을 하고요, 하하하, 아주 전체 몸뚱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뿐 아니라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을 볼 때, 참으로 이것은 참선이 딴 데 있는 게 아닌데 이러는구나. 그러면 저런 분은 기독교 믿어도 한 번도 천당에 못 갈 거고 또는 불교 믿어도 승천 못 할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은 백팔 배를 못 하고 그래서 리어카 끌어 먹는 사람은 그럼 승천 못 할 거 아닙니까. 바빠서 절을 못 하니까 말입니다. 하하하.

그러니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이 도리와 더불어 아까 얘기해 드린 거와 모든 것을, 지금 인공위성이 위로 올라가는 시대, 시대를 따라서가 아니라 부처님이 전자에 말씀해 놓으신 그 뜻이 바로 오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한,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은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부활절도 초 초마다 부활절이요, 4월 8일도 일 초 일 초 바로 부처님이 탄생을 하신 날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해서 찰나찰나 돌아가는데, 찰나찰나 돌아가면서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생각을 일으킬 때마다 바로 부활이고 바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 부처님 오신 날 일 년에 한 번씩 와서 인등을 켠다고 하는데, 인등은 내 마음을 일으키고 불심을 일으키는 데서 그게 밝은 인등입니다. 그것을 꼭 해야만 되느냐 하지마는 마음이 일으켜졌으니까 움죽거려지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걸 켜는 겁니다. 그러니 절마다 인등을 켜 놓는다고 그, 뭡니까? 요만한 항아리에다가 예전에 기름으로 켜던 그런 식으로 된 데다가 요렇게 전깃불 하나 해 놓고, 거기다가 인등 켠다고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그러거든요.

난 그런 것도 여러분 자신들이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 마음 한 생각이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내 한 생각이 우리 식구를 다 살릴 수가 있고, 내 한 생각이 잘못돼서 구덩이에 빠지게끔도 할 수 있고 구덩이에서 꺼낼 수도 있는 그런 자력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고 재료도 주어져 있는데 그렇게 남한테 의존하고 맹종하고…. 사람을 믿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름을 믿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불교는. 기독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어떤 형상을 믿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 모르니까 나를 익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절을 시켰고, 또 자기가 자기 나무에서 실과가 무르익어서 아주 갖가지 맛을 내라고 그런 거고, 그 씨가 익으면 내년에 또 심으니까 영원한 자기를 맛보라고 그렇게 절을 시킨 겁니다. 절을 꼭 108배 할 것을, 마음을 둥글려서 일 배를 잘 하신다면 108배 한 거보다도 그 일 배가 더 중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남편은 바빠서 지금 그냥 공당공당 뛰고 나가는데 자기는 자기대로 돌아서서 자기 할 일만 뭐, 주문을 외운다거나 이런다면 굶주리게 되고 또는 고독하게 되고 이러는 거죠. 자기도 그렇고 가정이 다 그런 거죠.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도리를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그 모든 시스템이 돼 있어서 자동적으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 이 도리를 아실 거 같으면 어떠한 별성도 바로 나인 것이고, 내가 별성이 될 수도 있고 핼리 혜성도 될 수 있고 또 그 핼리 혜성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도 죽어서 나를 발견하고 두 번째는 또 나를 발견해 가지고 둘이 아닌 도리를 실험하고 체험해서 그 도리를 알아야 하고 세 번째, 내가 또 죽어서 서로 같이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았기 때문에 둘이 아닌 나툼을 나툰다. 네 번째,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도리를 알았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산다. 자유인이 된다. 찰나찰나 생활을 그대로 자유스럽게 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 생활 속에 바로 부처님이 계시고, 변소에 가도 자기가 변소에 갔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걸 아셔야 할 것입니다. 불당에만, 법당에만 부처가 있는 게 아니고 또 교당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에게 내 님이 있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고 발견해야 하고 나를 발견한다면, 바로 내 주처를 먼저 알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는 바로 실험과 체험이 들어갑니다. 둘이 아닌 도리. 둘이 아닌 도리를 진짜로 알아야만이 스승도 팔아먹지 않을 거고 뼈다귀도 우려먹지 않을 거고 이름을 팔아먹지도 않을 거고, 또는 거기서부터 둘이 아닌 도리를 행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여러분이 그대로 자유스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잘함으로써 자식들도 뿌리가 싱싱해지고 병 안 들고 그렇기 때문에 가지와 이파리는 아마도 싱싱할 겁니다.

그러니 불법이 어디 따로 국한돼 있는 걸로 알지 마시고, 우리 젊은 사람이나 또는 남녀를 막론해 놓고 법당에 들어가면 부처님 바로 그 생명이 내 생명이고,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부처님 형상이 내 형상이고 둘이 아닌 까닭에 둥글려서 일 배를 진실히 진심으로 할 때 바로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일심으로 돌아가서, 일체로 돌아가서 일 배가 만 배를 능가할 수도 있는 그런 이치가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달마 대사가 양 무제더러 말했듯이 "얼마나 공덕이 됩니까?" 하니까 "넌 공덕이 하나도 없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갖다 준다, 집을 지어 준다 해서 공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음공부를 하면서 물 한 컵을 떠 줘도 공덕이 된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만민이 다 와서 이 공부 하는 자리를 만들었을 때 이 공부를 하고 가는 사람의 공덕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그 마음씨가 바로 이다음에 다시 돌아서 나오실 때 무심의 통장으로서 다시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고 또는 자식들에게 햇빛을 줄 수도 있고 또 부모들한테 묵은 빚을 갚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으로 훌륭한 여러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중이 돼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수백 명 수천 명을 거느리고 사는 회사 회장도 있고 또는 정치가들도 있고 또는 장관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그렇듯이 말입니다.

이 도리를 잘 알아서 그렇게 태어나서 다시금 그 통장을 쥐고 바로 자기가 자기를 인정한 그, 지금 사인이라고 그러죠? 사인을 착 받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와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건질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지 않은 일이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달 내내 일을 안 했으면 일한 대가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내가 안 한 일은 나한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악도 그렇고 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악도 거기 놓고 선도 놓고 잘한 것도 놓고 못한 것도 놓고 다 놓고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자성신, 자기 주처에서는, 바로 자기 님이 자기를 이끌어 갑니다.

내 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마는 부처님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 하나도 부처라고 하는 게 없는 것이 부처예요. 부처라고 했다면 벌써 부처가 아닙니다. '큰스님이다' 이런 말도 이름이지 그것은 그 사람이 통달해서 남을 이익하게 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한 데 떨어뜨리지 않고 실천으로써 그것이 법이 돼야만이 그게 이득이 가고, 여러분이 오면 말없이 왔다가도 충전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지수화풍으로 뭉쳐진 거기 때문에 지금 과학적으로 연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더 앞을 내다보고

☞ 22면으로 계속

